

천안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1, 2 파랑새 우체독 이미지
3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천안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 가구를 찾아 조사를 계속하는 중이다. 위기 가구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단전, 단수, 월세 및 통신 요금 체납 등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2019년 6천2건, 2020년 1만2천889건, 2021년 6월 기준 9천864건의 위기 대상자를 발굴했다.

또 시민 누구나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활용한 온라인 신고 채널 '파랑새 우체독'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시민들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2019년 23건, 2020년 13건, 2021년 6월 기준 13건의 위기 가구를 확인했다. 비대면 시대에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프라인 신고 체계로 무보수 명예직인 '천안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해 올 상반기 5천여 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살 우려 주민, 피학대 의심 아동, 치매 노인 등 복지 위기 시민을 발견하면 천안시에 신속하게 제보하고, 안부 확인과 함께 지역자원과의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에는 평소 주민 생활공간과 삶의 모습을 밀접

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천안 우체국 직원,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주)JB(구 중부도시가스)의 검침원, 부르미콜(라이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등을 위촉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편의점 등 국내 편의점 5곳과 협약을 체결해 이들 업체 소속 527개 점포를 '파랑새편의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경제적 위기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천안지부와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기로 해 금융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 안전망 채널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 지원 등의 공적 지원, 통합 사례 관리, 장애인 활동보조, 가사 간호, 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복지재단, 공동모금회, 후원 등 민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천안시는 올해 7월까지 1만여 명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5천600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천안시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2021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나 생활 업종 종사자 등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